

4회, 흐름은 넘어갔다 큰 경기는 흐름 싸움인데 일단 KIA가 장악했다. 지면 탈락인 절박함으로 10일 와일드카드 1차전에 임한 KIA 선수단이 4회 LG 유격수 오지환의 실책에 편승해 선제 2득점을 한 뒤, 한껏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잠실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양현종 vs 류제국, 선발 어깨에 운명 걸다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 전망

양현종 LG 상대 2승2패 방어율 2.41 강해
류제국도 KIA전 1승1패 방어율 2.37 호투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 됐다. 분위기는 오히려 KIA가 좋다. 1무 또는 1패를 하면 탈락하는 벼랑 끝 1차전 승부에서 이기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 정규시즌(7승1무8패)까지 포함하면 이제 8승1무8패로 균형을 맞춘 상황이다. 마이너스 살림에서 균형을 맞춘 느낌이다. LG는 반대로 가지고 있던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쫓기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다만 상황적으로는 여전히 LG가 유리하다. 2차전에서 무승부가 될 경우 4위인 LG가 준PO 진출권을 얻기 때문이다.

11일 열리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 승부의 키는 역시 선발투수가 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일이 없는 승부이기 때문에 초반에 주도권을 잡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KIA는 양현종, LG는 류제국을 2차전 선발로 예고했다. 둘 다 호락호락한 투수는 아니다.

WC 2차전 선발투수 비교

양현종(KIA) 시즌 성적	양현종(KIA) 상대 성적	구분	류제국(LG) 상대 성적	류제국(LG) 시즌 성적
31	6	경기수	3	29
10-12-0	2-2-0	승-패-세	1-1-0	13-11-0
200 1/3	37 1/3	이닝	19	161 1/3
96(82)	17(10)	실점(자책)	7(5)	83(77)
3.68	2.41	방어율	2.37	4.30
146	26	탈삼진	21	138
79	18	4사구	10	91
19	4	피홈런	1	14
1.34	1.42	WHIP	1.11	1.38
0.255	0.266	피안타율(전체)	0.194	0.255
0.235	0.233	피안타율(좌타자)	0.250	0.243
0.264	0.275	피안타율(우타자)	0.167	0.263

기록적으로도 엇비슷하다. 류제국은 올 시즌 29경기에 등판해 개인 시즌 최다승인 13승(11패)을 올렸고, 시즌 방어율 4.30을 기록했다. 시즌 초반 1승4패로 출발할 때만 해도 불안했지만, 갈수록 안정감을 찾았다. 전반기에 5승8패, 방어율 5.11을 기록한 뒤 후반기에만 완봉승 1차례 포함해 8승3패, 방어율 3.36의 호성적을 올렸다.

양현종은 자타공인 KIA의 좌완 에이스다. 올 시즌 승운이 따르지 않아 10승(12패)에 그쳤지만, 200이닝을 돌파(200.1이닝)하며 방어율 3.68을 기록했다. 방어율 전체 4위인데, 외국인선수를 제외한 국내 투수 중에선 두산 장원준(3.32)에 이어 2위다. 그만큼 계산이 서는 투수라는 의미다.

상대성적도 좋다. 류제국은 KIA전 3경기에 등판해 1승1패를 기록하면서 방어율 2.37로 자신의 시즌 방어율보다 훨씬 좋은 투구를 펼쳤다. 양현종은 LG전 6경기에 나서 2승2패를 거두면서 방어율 2.41을 마크했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시즌 기록도 중요하지만 단기전은 또 다른 무대이기 때문이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 선발등판한 KIA 헥터 노에시는 정규시즌에 LG에 다소 약한 면(1승2패, 방어율 4.15)을 보였지만, 이날은 제몫을 다해냈다. 당일 컨디션이 중요하다.

타선은 1차전을 치렀기 때문에 양 팀 모두 1차전보다는 긴장이 풀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1차전에서 드러났듯이 양 팀 다 1번타자의 방망이가 숙제다. 1차전에 리드오프로 나선 KIA 김선빈과 LG 김용의가 안타를 생산하지 못하면서 공격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어차피 다득점이 쉽지 않은 포스트시즌이라는 점에서 1번타자가 터지는 팀이 2차전을 좀 더 수월하게 풀어나갈 전망이다.

큰 경기에서 늘 그렇듯, 승부는 결국 큰 것 하나와 결정적 실책, 본헤드플레이 하나에서 갈라질 가능성도 있다. 1차전에서도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기본에 충실한 팀이 승리에 더 가깝게 다가설 수밖에 없다.

잠실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MVP·신인왕 투표방식 '점수제'로

득표제 객관적 결과 도출하기 힘들어
동점시 1위표 가장 많이 받은 선수 선정

KBO리그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와 최우수신인왕을 선정하는 투표 방식이 바뀐다. 가장 큰 변화는 MVP와 신인왕 선정 모두 기존의 득표제(다수결)에서 점수제로 변경한다는 점이다. 21년 만에 왜 점수제로 바뀌는 것일까.

●21년 만에 점수제로 전환

KBO가 MVP와 신인상 투표를 점수제로 변경하는 것은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실시한 이후 21년 만이다.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특정후보 중 1명에게 투표하는 방식이었다. 미국 메이저리그(MLB)와 일본프로야구(NPB)에서도 점수제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점수제 전환은 최근 선수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가 많아진 만큼 투표인단의 다양한 선호도를 반영하고, 더 많은 선수들의 활약을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종전까지는 후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추린 뒤 투표를 했지만, 이제는 후보도 미리 선별하지 않는다. MVP는 규정이닝(투수)과 규정타석(타자)을 채운 선수 또는 각 부문별 순위 10위 이내 선수면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다. 규정이닝과 규정타석을 채우지 않더라도 개인 타이틀 부문 어디에나 10위 이내면 MVP 후보가 된다는 의미다. 신인상은 KBO 표창규정 제7조(KBO 신인상)의 자격요건을 채우면 후보가 된다. 올 시즌 입단 및 등록된 선수 외에는 올 시즌을 제외한 최근 5년(2011년 입단 및 등록 기준) 이내 기록이 투수는 30이닝, 타자는 60타석 이하이면서 해외프로야구 기구에 소속되지 않았던 선수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

투표는 한국야구기자회소속 언론사와 투표인단으로 선정된 각 지역 언론사의 KBO리그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MVP는 1위부터 5위까지, 신인상은 1위부터 3위까지 순위를 정해 기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MVP 투표에서 1위표에는 8점이 부여된다. 2위는 4점, 3위는 3점, 4위는 2점, 5위는 1점을 얻는다. 1위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 1위와 2위의 점수차를 크게 했다. 신인상은 1위 5점, 2위 3점, 3위는 1점을 받게 된다.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선수가 최종 선정된다. 투표인단은 투표용지에 MVP 5명과 신인상 3명을 모두 기입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기입하지 않거나 선수명을 잘못 기입하면 해당 투표자가 정한 선수의 점수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 또한 동일한 최고 점수를 획득한 선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위표를 가장 많이 받은 선수가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다.

●왜 점수제인가?

1인1투표제(득표제)는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A선수와 B선수가 엇비슷한 성적을 올려 최소한 60-40 이내의 투표결과가 나오는 게 타당하지만, 득표제에서는 2위라고 판단한 후보에게는 표나 점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80-20 정도까지 득표수가 벌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다. 물론 점수제도 단점은 있다. 특정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1위로 올린 뒤 2위에 해당하는 선수에게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다. 그러나 득표제보다는 점수제가 장점이 많기 때문에 MLB와 NPB도 이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2016년 MVP와 신인왕 투표는 준플레이오프 1차전이 열리는 13일 고척스카이돔 기자실에서 경기시작 전 실시하며, 투표 결과는 한국시리즈 종료 후 개최되는 시상식 당일 공개된다.

이재국 기자

공정위, 프로야구 불공정계약 손질

"1군 말소된 선수연봉 감액은 부당
참가활동기간 훈련비도 지원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브리핑에서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기·훈련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군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봉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선수의 책임이 없는 경우 연봉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 선수가 부상 재발로 1군에 등록되지 못한 경우에는 2군(퓨처스리그) 복귀 후 10경기 이후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부상자가 복귀 후에도 경기감각을 회복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연봉 감액 대상 선정기준도 2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매년 참가활동기간(2월1~11월30일) 중 구단이 선수에게 훈련비용을 떠넘기는 조항도 손질한다. 그간 타격 또는 투구폼을 바꾸거나 수술·재활 등 치료방법을 바꾸며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선수가 부담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프로스포츠 구단은 참가활동 기간 중 선수가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을 보조·지원할 의무가 있다"며 "선수계약서에도 이러한 구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참가활동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구단이 부담토록 했다.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지금까지 선수들은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 영화·연극·라디오·TV 등의 대중매체에 출연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활동기간(12월1일부터 1월31일까지)에는 개인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날 공정위 브리핑에 참석했던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김선웅 사무국장은 "공정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법률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간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공정하지 못했고,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준 것에 의의가 있다. 필요하다면 선수협 측에서도 법적 대응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내 남편 허프는 야구 완벽주의자"

패밀리가 떴다

잠실 찾은 LG 허프의 아내와 아들

"미국서 김치 사서 먹을만큼 난 한국광
남편 강점은 제구…편하게 즐겼으면"

2016 가을야구의 서막,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열린 10일 잠실구장. 치열한 승부의 현장엔 선수들만이 긴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선수만큼 긴장되긴 마찬가지다.

이날 LG 선발로 나선 데이비드 허프(32)의 가족들은 그러나 이 같은 예상에서 다소 빗나간 모습이었다. 허프의 부인인 리사 허프와 그의 18개월짜리 아들 이든은 걱정 대신 기대감을 안고 가장의 경기를 기다렸다. 리사는 이제 한국생활 한 달차에 접어든 새내기 서울 시민. 허프는 7월에 LG 유니폼을 입었지만, 그동안 아들 이든이 아파 지난달에야 한국땅을 밟았다.

리사는 "지난달 한국에 와서 한동안 시차적응 문제로 고생을 했다. 나도 1주일 넘게 시차적응이 걸렸고, 이든은 2주 넘게 걸려 새벽에 잠을 많이 설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지금은 시차적응을 끝내고 남편 내조에 한창이지만, 리사도 프리랜서로 전 세계를 누비는 커리어우먼이었다. 그러나 허프를 만난 뒤 여느 야구선수 아내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첫 만남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였다. 리사는 "LA에서 허프를 처음 만났다. 당시 허프는 양키스 소속으로 LA에 원정경기를 왔던 때였다"고 말했다. 물론 처음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리사는 "처음에 허프가 야구선수라는 말을 듣고 고민을 했다. 그런데 허프가 '자기를 꼭 믿어 달라. 나는 야구선수지만 다른 남자들과 달리 가정에 충실한 남자다'라며 나를 설득했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

이후 캔자스시티와 LA(에인절스)를 거쳐 올해 한국까지 함께 넘어오게 된 리사. 한국 생활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김치'를 미국에서부터 즐겼을 정도로 한국과는 인연이 깊다. 리사는 "한국음식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특히 김치를 좋아해 미국에서 사서 먹을 정도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남편의 경기를 따라다니며 이제는 야구의 '준 전문가'가 된 리사. 그녀가 본 허프의 장점은 무엇일까. 리사는 "일단 남편은 제구력이 좋다(웃음). 또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한다"며 "야구에 대한 열정이 최고다.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 한다. 야구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자"라고 설명했다.



LG 외국인투수 데이비드 허프의 부인 리사가 KIA와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이 벌어진 10일 잠실구장에서 아들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다. 잠실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올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친 허프가 만약 내년에도 한국에 오자고 한다면 어떻겠냐는 질문에 리사는 남편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리사는 "남편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나에게 의사를 물어보지만 나는 남편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면서도 "그래도 남편이 팀원들을 많이 좋아하는 걸 느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가을야구에 응원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말에 리사는 한 마디로 이를 대신했다.

"응원이요? 저는 그냥 남편이 마운드 위에서 편하게 야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잠실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 빅마우스

●…한국시리즈 누가 우승하느냐보다 오늘 누가 이기는지가 더 궁금할 거야. (서재응 SBS 해설위원. 오늘 경기에 집중된 야구팬들의 관심에 대해 언급하며)

●…16년 넘게 프로생활하면서 14년 만에 가을야구한다. (KIA 김광수. 2000년 LG 입단 이후 2002년 포스트시즌에 엔트리에만 들고 출전하지 못한 뒤 처음 가을야구를 경험한다며. 김광수는 그동안 가을야구에 초대받지 못한 LG와 한화를 거쳤다)

●…(한참 뜸들이다가) 노코멘트하겠습니다. (LG 양상문 감독.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선발이 헥터와 양현종 누구였으면 좋겠냐고 묻자. 헥터라는 것을 은근슬쩍 내비치며)

●…불리한데 긴장하면 뭐혀요. 후배들에게 '즐겁게 하자'는 말만 했습니다. (KIA 주장 이범호. 주장으로서 후배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했냐는 질문에 사투리를 섞어가며)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 긴장돼서가 아니라 설레서! (LG 이형종. 프로 입단 8년차에 처음으로 포스트시즌 엔트리에 들어간 소감을 묻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